

전북지역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 현황

2021. 4.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작성자> 김진용 과장



[요약]

I. 검토 배경 1

II. 경제력지수 산출 2

1. 관련 선행연구 2
2. 경제력지수 개발 3
3. 산출결과 6

III. 부문별 균형발전 현황 9

1. 소득수준 9
2. 산업발전 11
3. 인력기반 14
4. 취업여건 17
5. SOC 및 재정력 19

IV. 요약 및 시사점 21

<참고문헌>

【 요약 】

I. 검토 배경

- 지역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지역내총생산(GRDP)과 인구 측면에서 평가할 때 전북경제는 대체로 낙후된 상황
 - 경제성장률(1986~2019년)은 연평균 4.2%로 전국(5.7%) 및 8개도(5.2%)보다 낮으며, 인구는 1966년 252만명에서 2020년 180만명까지 감소
- 전북경제가 성장동력을 복원하기 위한 선제작업으로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산출하고 균형발전 현황을 타 지역과 비교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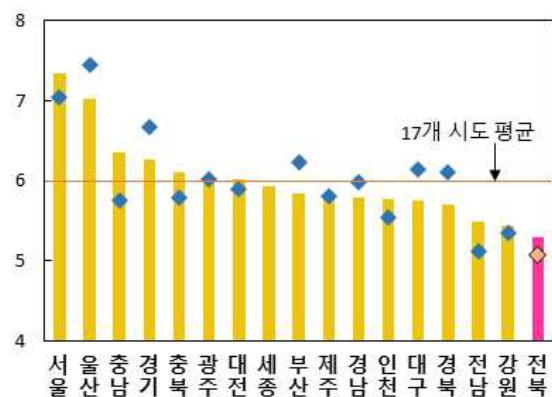
II. 경제력지수

- (경제력지수 개발) 산업연구원(2006) 등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경제력지수를 산출
 - 경제력지수는 ① 소득수준, ② 산업발전, ③ 인력기반, ④ 취업여건, ⑤ SOC 및 재정력 등 5개 부문의 총 15개 지표로 구성
- (종합순위) 2019년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
 - 부문별로는 취업여건(6.26)을 제외하고 인력기반(5.04), 소득수준(5.10), SOC 및 재정력(5.22), 산업발전(5.38) 모두 평균을 하회

경제력지수 부문별 현황(2019년)



시도별 경제력지수(2019년)¹⁾



주: 1) ◆ 표식은 2000년 지수

□ (변화추이) 전북은 2000년 16개 시도 중 16위에서 2010년 15위로 상승한 뒤, 2019년 17개 시도 중 17위를 기록하며 낙후상황 지속

○ 동기간 충남 및 충북은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대구, 경북, 인천은 순위가 하락

○ 전북, 강원 및 전남이 시기에 상관없이 하위권

Ⅲ. 부문별 균형발전 현황

1.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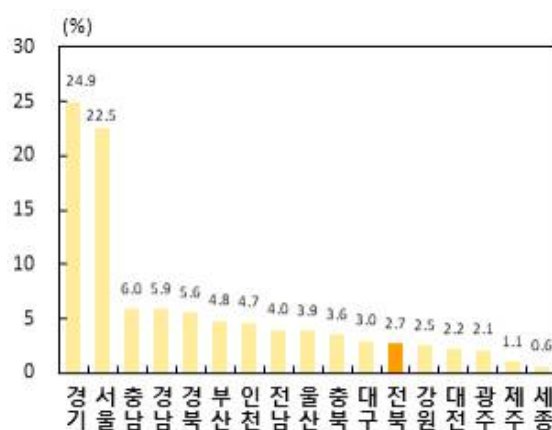
□ 클라센(Klaassen) 지역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전북은 저발전지역에 해당

○ 1인당 GRDP 및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모두 전국 대비 낮은 수준

□ 전북의 지역내총생산(명목GRDP 기준)은 2019년 51.8조원으로 전국의 2.7%를 차지(17개 시도 중 1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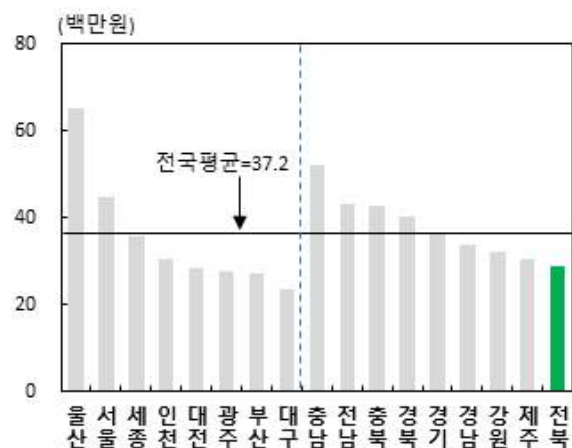
○ 전북의 1인당 GRDP는 2019년(잠정) 기준 2,874만원으로 전국(3,721만원)의 77% 수준(17개 시도 중 13위)

시도별 전국 대비 GRDP 비중(2019년)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시도별 1인당 GRDP(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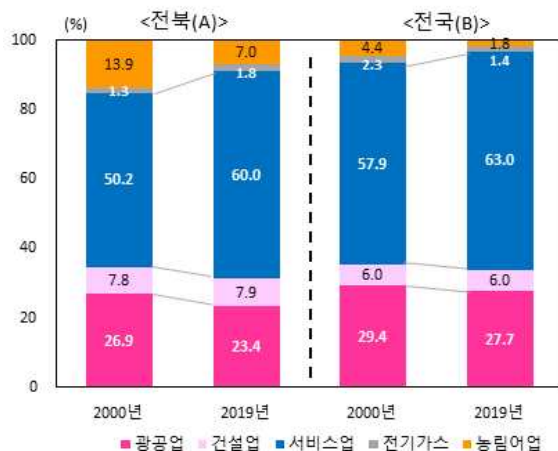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2. 산업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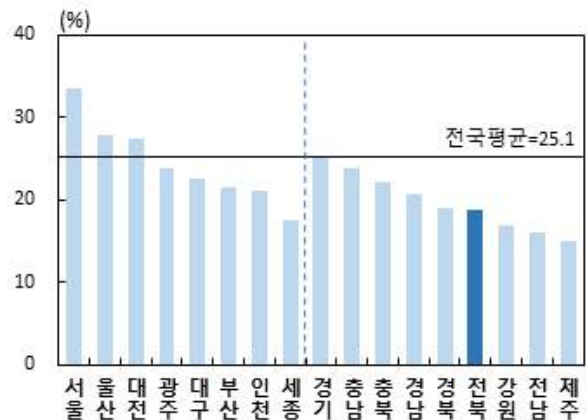
- **(산업구조)** 건설업(7.9%), 농림어업(7.0%)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반면, 광공업(23.4%), 서비스업(60.0%) 비중은 전국보다 낮음
- **(사업체 종사자)** 주민등록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중은 39.6%로 전국(43.8%) 대비 낮음(17개 시도 중 15위)
-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비중도 2019년 기준 18.8%로 전국(25.1%) 대비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3위)

전북 및 전국의 산업 비중¹⁾



주: 1) GRDP 명목 총부가가치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시도별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비중(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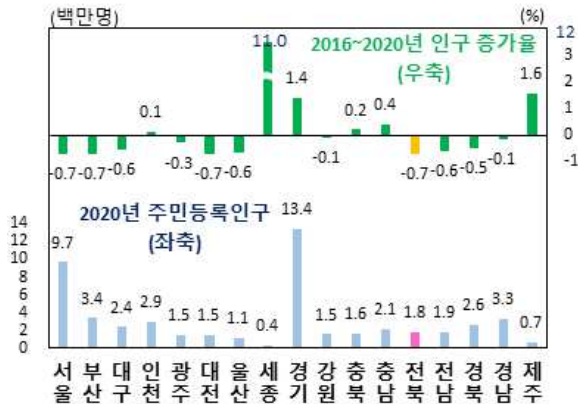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저자시산

3. 인력기반

- **(인구현황)** 전북인구는 1966년 252만명에서 2020년 180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인구증가율(2019년)은 -1.0%로 전국(0.0%) 대비 낮음(17개 시도 중 16위)
 -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68.2%로 전국(72.7%) 대비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6위)이며 노령화지수는 1.63으로 전국(1.19)에 비해 높았음
- **(교육정도)**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이상 인력 비중은 2019년 77.0%로 전국(85.4%)보다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4위)

시도별 인구 및 증가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비중(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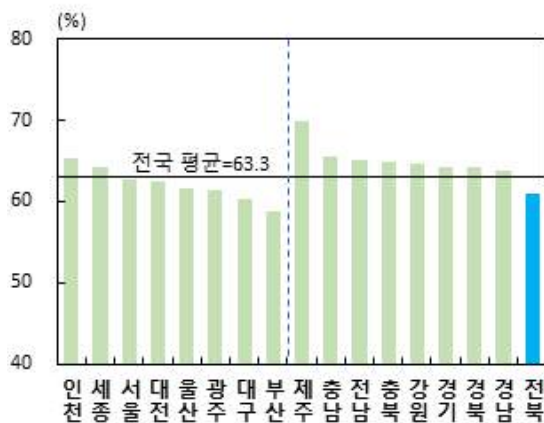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취업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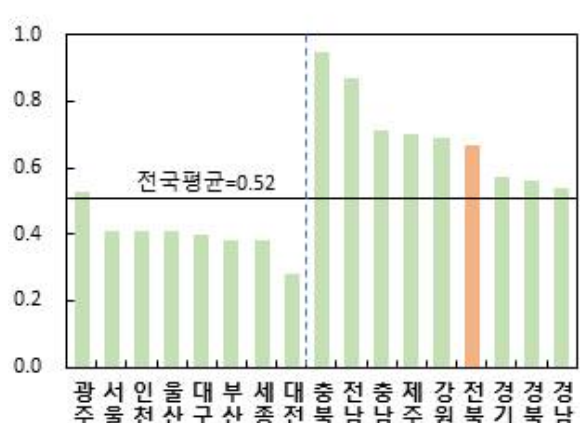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61.0%로 전국(63.3%) 대비 낮으며(17개 시도 중 15위), 실업률은 2.7%로 전국(3.8%) 대비 양호(17개 시도 중 3위)
- 연령별 고용상황을 보면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청년층 취업여건이 나쁨
- (구인배수) 전북의 구인배수는 0.67로 전국(0.52) 대비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9개도(0.70) 대비로는 낮음(17개 시도 중 6위)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2019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시도별 구인배수(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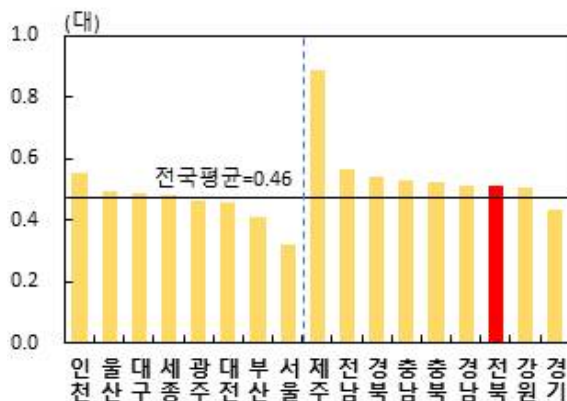


자료: 워크넷

5. SOC 및 재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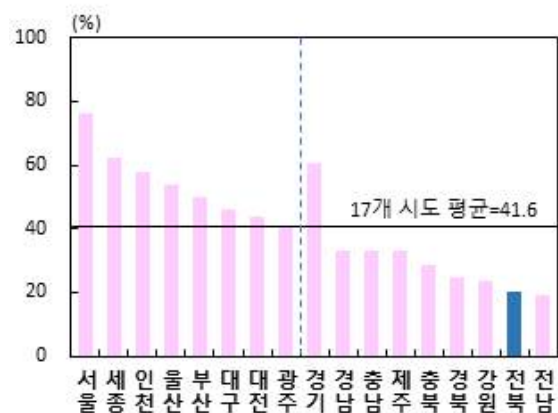
- (SOC) 도로율과 자동차등록대수 측면에서 평가한 SOC 지표는 전국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양호한 수준
 - 도로율은 1.06으로 전국(1.11) 대비 낮고, 주민등록인구 대비 자동차등록대수는 0.51대로 전국(0.46) 대비 높은 편
- (재정력) 재정자립도는 20.4%로 17개 시도 평균(41.6%) 대비 절반 수준
 - 대기업 수가 적고, 농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낮은 1인당 지역총소득 및 인구감소세로 인해 세수기반이 취약한데 기인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자동차등록대수(2019년)**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현황

시도별 재정자립도(2019년)



자료: 통계청

IV. 요약 및 시사점

- 경제력지수 산출결과 전북은 타 시도 대비 경제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
 - 경제가 성장궤도로 진입하기 위해 구조전환 및 역량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
- (산업구조 전환 노력 필요) 과거에 결정된 산업입지는 현재의 산업집적에도 영향을 주며,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생산성 차이보다는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에 상당 부분 기인

- 전북이 전국 대비 낮은 비중을 보유한 산업의 성장률(2000~2018년)이 높게 나타나며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 구조전환으로 경제적 불균형을 극복한 충남 및 충북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의 발전경로를 뛰어넘을 필요
- **(성장잠재력 보유 산업의 발굴)** 잠재적 성장성을 갖춘 산업을 사전에 발굴하여 선점할 필요
 - 이러한 측면에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전주, 2021.3월), 수소용품 검사지원 센터 유치(완주, 2021.3월)와 같은 성과는 큰 의미
- **(내부 역량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 외부 의존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유효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양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가속화에 따라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우수인력 육성 등 내부 경제기반을 전반적으로 성숙시켜 대응할 필요
 - 새만금사업이 전북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민간 자본의 체계적 유치 등에 노력

I

검토 배경

- 한국경제는 그동안의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소득 불균형이 발생
 -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로서 역대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3조 제2항)
 -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19년),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19년)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입법 측면에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2004년)되어 균형발전 정책을 지원
- 지역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지역내총생산(GRDP)과 인구 측면에서 평가할 때 전북경제는 대체로 낙후된 상황
 - 전북의 경제성장률(1986~2019년)은 연평균 4.2%로 전국(5.7%) 및 전국을 제외한 8개도(5.2%)보다 낮은 성장세
 - 1인당 GRDP는 2,874만원(2019년)으로 전국(3,721만원)의 77%에 불과
 - 한편 전북의 인구는 1966년 252만명(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0년 현재 180만명 수준까지 감소
- 전북경제가 낙후된 상황을 벗어나 성장동력을 복원하기 위한 선제 작업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
 - ⇒ 소득, 인구, 산업, 재정 등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력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해 전북지역의 균형발전 현황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

Ⅱ

경제력지수 산출

1

관련 선행연구

- 지역의 발전정도를 측정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지역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삶의 질 지표를 결합하여 지역의 종합적 발전정도를 측정*

* '<참고 1> 지역발전정도 측정 선행연구' 참조

- 산업연구원(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은 지역경제력과 주민 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역발전지수(RDI)를 개발
 - 이원섭·박양호(2002), 홍준현(2001) 등은 시군구 혹은 광역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수준 및 지역격차를 연구
 - KDI(2013)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공공투자사업을 종합 판단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
 - 지역의 발전정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전북은 대체로 하위권을 기록
 -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2018년 지역발전지수에서 전북은 5.41로 전남(5.32)에 이어 분석대상 16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
 - 지역발전지수 내 지역경제력지수도 전북은 4.96으로 전남(4.92)에 이어 분석대상 16개 시도 중 15위
 - 시군 단위로 산출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발전지수에서 2020년 상위 50개 시군 중 전북은 전주시(19위)가 유일
 - KDI가 조사한 2013년 지역낙후도지수에서 전북은 강원, 전남에 이어 분석대상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
- ⇒ 본고에서는 삶의 질 측면보다는 경제력 현황에 초점을 두고 지표를 산출하여 전북지역 균형발전 관련 논의를 진행

2 경제력지수 개발

(지수작성 방법 및 지표 선정)

□ 본고에서는 산업연구원(2006)의 지역경제력지수 산출에 사용된 지표를 일부 변형하여 활용

○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지수는 지역경제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로 구성되는데, 이 중 지역경제력지수가 본고의 연구방향에 부합

○ 새롭게 산출한 지수는 '경제력지수'로 명명하였으며 기존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지수의 하위 지수인 '지역경제력지수'와의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임

— 첫째, 산업연구원 지역경제력지수에서 '혁신역량'을 제외하였고 주민활력지수 내 '근로여건' 부문을 포함

■ 혁신역량 부문*은 미래의 성장역량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력지수에서는 제외

* ① 총취업자 대비 고급인력 비중, ② 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비중, ③ 인구 대비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등 3개 지표로 구성

■ 근로여건 부문의 지표(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구인배수)는 지역내 일자리와 취업여건을 반영하고 있어 경제력지수에 포함

— 둘째, 최근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산업발전 부문 내의 지식기반 산업 분류를 최신화(<참고 2> 지식기반산업의 분류 문제' 참조)

□ 경제력지수는 ① 소득수준, ② 산업발전, ③ 인력기반, ④ 취업여건, ⑤ SOC 및 재정력 등 5개 부문의 총 15개 지표로 구성

경제력지수 내 구성지표 및 세부내용

부분	지 표	세부내용	자료원
① 소득 수준	일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주민등록인구 대비 GRDP	지역내총생산(통계청)
	일인당 연간소비지출액	주민등록인구 대비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지역내총생산(통계청)
② 산업 발전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주민등록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수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제조업종사자수 비중	총사업체 종사자수 대비 제조업종사자수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비중	총사업체 종사자수 대비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③ 인력 기반	인구성장률	주민등록인구 전년대비 증가율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계인구 중 15~64세 인구 비중	장래인구추계(통계청)
	노령화지수	65세이상 인구/0~14세 인구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고졸이상 비중	경제활동 인구 중 고졸이상 비중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④ 취업 여건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및 실업자/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실업률	연도별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구인배수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자수	워크넷통계연보 (한국고용정보원)
⑤ SOC 및 재정력	도로율	지역면적 대비 도로연장(km/km ²)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
	총인구대비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 등록대수/주민등록인구	국토교통통계연보 (국토교통부)
	재정력	재정자립도	지방재정통계(행정안전부)

(지수 산출 방식)

- 단위가 다른 15개의 지표들을 통합하기 위해 정규화를 통해 개별 지표들을 표준화

$$Z_i = \frac{X_i - \bar{X}}{S}, \quad S \text{는 표준편차, } \bar{X} \text{는 표본평균}$$

- 노령화지수 및 실업률은 값이 클수록 경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지표이므로 음수로 변환한 뒤 표준화
- 표준화한 지표는 0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음수와 양수를 갖게 되는데, 모든 지표값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 표준화 값에 6을 더함

□ 구성지표들의 가중치는 산업연구원(2006)의 가중치를 사용하고 가중치 합계가 1이 되도록 부문별 가중치 크기를 비례조정(scaling)

- 산업연구원(2006)은 행정공무원, 연구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해 가중치를 선정

* 이해관계가 상이한 여러 전문가 그룹에 속한 여러 명의 평가자가 대안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하여 집단의 가중치를 선정하는 방식

- 한편 최종적으로 산출된 경제력지수는 부문별 가중치에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비교를 위해 부문별 가중치를 동일하게 부여하는 비교지수도 함께 산출

경제력지수 가중치

부문	부문별 가중치 (A)	지표	부문내 가중치 (B)	전체 가중치 (A×B)
소득수준	0.341	일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0.500	0.171
		일인당 연간소비지출액	0.500	0.171
산업발전	0.288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0.250	0.072
		제조업종사자수 비중	0.250	0.072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비중	0.500	0.144
인력기반	0.091	인구성장률	0.333	0.030
		생산가능인구 비중	0.167	0.015
		노령화지수	0.167	0.015
		고졸이상 비중	0.333	0.030
취업여건	0.090	경제활동참가율	0.333	0.030
		실업률	0.333	0.030
		구인배수	0.333	0.030
SOC 및 재정력	0.189	도로율	0.250	0.047
		총인구대비 자동차등록대수	0.250	0.047
		재정력	0.500	0.095
합계	1.000	-	-	1.000

□ 15개 구성 지표가 모두 가용한 2019년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되 과거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 2010년 지수도 산출

- 2019년의 분석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이며, 2000년 및 2010년 지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총 16개 시도가 분석대상

* 2012.7.1일부로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충북 청원군 일부를 편입하여 출범

3 산출 결과

종합순위

□ 2019년 기준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

- 부문별 동일한 가중치(5개 부문별 가중치 1/5)를 부여해 산출한 비교 지수는 5.40으로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위는 동일

경제력지수 산출 결과
(2019년)

시도	경제력 지수	종합 순위	부문별 지수 <가중치>				
			소득수준 <0.341>	산업발전 <0.288>	인력기반 <0.091>	취업여건 <0.090>	SOC·재정력 <0.189>
서울	7.35	1	7.87	7.57	6.44	5.17	7.56
부산	5.80	10	5.78	5.84	5.79	4.94	6.18
대구	5.76	13	5.57	5.84	6.00	5.16	6.14
인천	5.85	9	5.47	5.64	6.58	5.53	6.65
광주	6.03	7	6.02	6.09	6.45	5.58	5.96
대전	6.05	6	6.00	6.34	6.37	4.99	6.06
울산	7.03	2	7.88	7.28	6.47	5.13	6.29
세종	5.92	8	5.74	5.07	8.04	6.17	6.42
경기	6.27	4	6.09	6.35	6.85	5.98	6.31
강원	5.43	16	5.53	5.22	5.21	6.34	5.27
충북	6.10	5	5.90	6.53	5.78	7.11	5.49
충남	6.36	3	6.52	6.75	5.56	6.86	5.63
전북	5.30	17	5.10	5.38	5.04	6.26	5.22
전남	5.48	15	5.64	5.20	4.48	7.23	5.28
경북	5.70	14	5.79	5.95	5.04	5.90	5.40
경남	5.79	11	5.58	6.12	5.83	5.84	5.63
제주	5.77	12	5.51	4.84	6.08	7.81	6.52
9개도 평균	5.80		5.74	5.82	5.54	6.59	5.64
수도권 ¹⁾ 평균	6.49		6.48	6.52	6.62	5.56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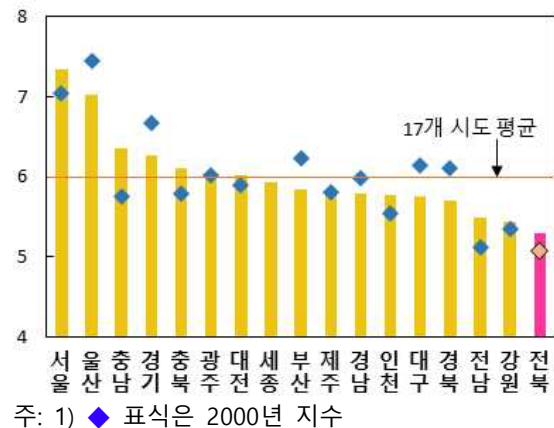
1) 서울, 인천, 경기

- 부문별로는 취업여건(6.26)이 평균(6.00)을 상회하였으나, 인력기반(5.04), 소득수준(5.10), SOC 및 재정력(5.22), 산업발전(5.38)은 모두 평균을 하회
- 9개도와 비교했을 경우 모든 부문에서 전북이 9개도 산술평균 대비 부문별 지수가 낮았음
- 다만, 15개 지표 중 실업률(3위), 구인배수(6위), 자동차등록대수(8위) 지표는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

경제력지수 부문별 현황(2019년)



시도별 경제력지수(2019년)¹⁾



변화추이

- 경제력지수 추이를 보면 전북은 2000년 16개 시도 중 16위에서 2010년 15위로 한 계단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19년 17개 시도 중 다시 최하위를 기록
- 경제력지수 절대값은 2000년 이래로 계속 상승(5.08→5.23→5.30)하여 개선되는 모습
- 상위권 3개 시도는 2000년 (1.울산, 2.서울, 3.경기), 2010년 (1.서울, 2.울산, 3.경기), 2019년 (1.서울, 2.울산, 3.충남)으로 변화
- 충남은 2000년에는 12위로 하위권이였으나 2019년에는 3위로 크게 상승하였고, 충북 역시 2000년 11위에서 5위로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지난 19년 사이 충청권의 약진이 두드러졌음

- 대구는 2000년 5위에서 2019년 13위로, 경북은 6위에서 14위로 큰 폭 하락하여 순위 하락이 컸으며 인천(4위→9위)도 순위가 하락

□ 하위권에 속한 3개 시도는 시기에 따라 순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북, 강원, 전남)으로 동일

경제력지수 변화추이

순위	2019		2010		2000	
	지수	시도	지수	시도 ¹⁾	지수	시도 ¹⁾
1	7.35	서울	7.20	서울	7.45	울산
2	7.03	울산	6.96	울산	7.05	서울
3	6.36	충남	6.50	경기	6.67	경기
4	6.27	경기	6.46	충남	6.24	인천
5	6.10	충북	6.10	경남	6.14	대구
6	6.05	대전	6.07	대전	6.10	경북
7	6.03	광주	6.03	광주	6.02	대전
8	5.92	세종	5.97	인천	5.99	경남
9	5.85	인천	5.94	충북	5.90	광주
10	5.80	부산	5.91	경북	5.81	부산
11	5.79	경남	5.82	대구	5.79	충북
12	5.77	제주	5.73	부산	5.76	충남
13	5.76	대구	5.60	제주	5.54	제주
14	5.70	경북	5.25	전남	5.35	강원
15	5.48	전남	5.23	전북	5.11	전남
16	5.43	강원	5.23	강원	5.08	전북
17	5.30	전북	-	-	-	-
9개도 평균	5.80	-	5.80	-	5.71	-
수도권 평균	6.49	-	6.56	-	6.65	-

주: 1) 2000년 및 2010년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

□ 전북의 경제력은 장기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제적 낙후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이같은 경제불균형 누증은 기업의 지역내 투자유인을 약화시켜 성장잠재력 하락, 소득감소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유출 초래로 지역경제가 저발전의 함정에 빠질 우려

Ⅲ 부문별 균형발전 현황

- ◆ 경제력지수에 포함된 5개 부문 및 15개 지표를 중심으로 전북의 부문별 경제불균형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

1 소득수준

- 클라센(Klaassen) 지역분류기준*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면 2019년 기준으로 전북은 저발전지역(underdeveloped region)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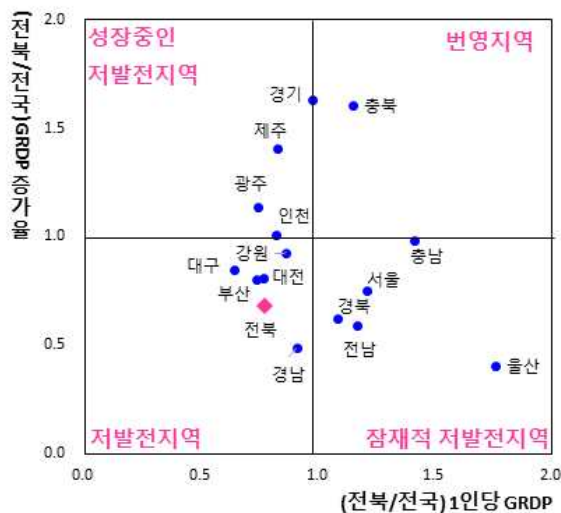
* 정태적 관점인 지역 소득수준과 동태적 관점인 성장률을 국가평균과 비교하여 4가지 유형으로 지역을 구분

- 정태적 관점인 1인당 GRDP 및 동태적 관점인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모두 전국 대비 낮은 수준*

* (1인당 GRDP, 2019년 잠정) 전북 2,874만원, 전국 3,721만원
(실질GRDP 연평균 증가율, 2010~2019년) 전북 2.2%, 전국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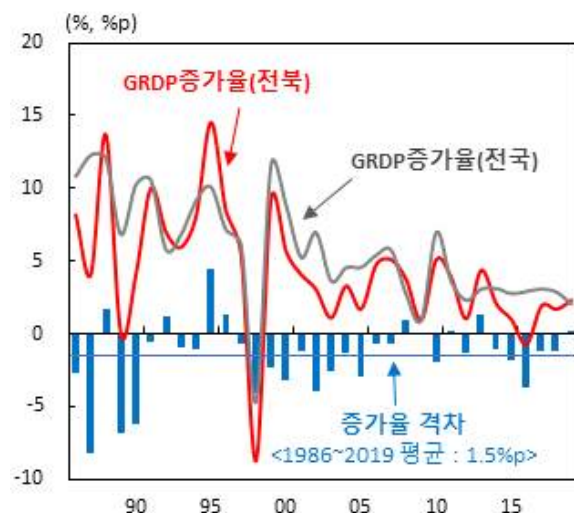
- GRDP 통계가 가용한 1985년 이래로 성장률 추이를 보면, 전북은 34개년 중 8개년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비 낮은 성장세를 시현 (GRDP 증가율 격차 연평균 1.5%p)

클라센 지역분류에 따른 시도별 분포¹⁾



주: 1) 세로축은 2010~2019년 실질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전국 및 전북 GRDP 증가율¹⁾ 추이



주: 1) 실질 GRDP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 전북 지역내총생산(명목GRDP 기준)은 2019년(잠정) 기준 51.8조원으로
전국의 2.7%를 차지(17개 시도 중 1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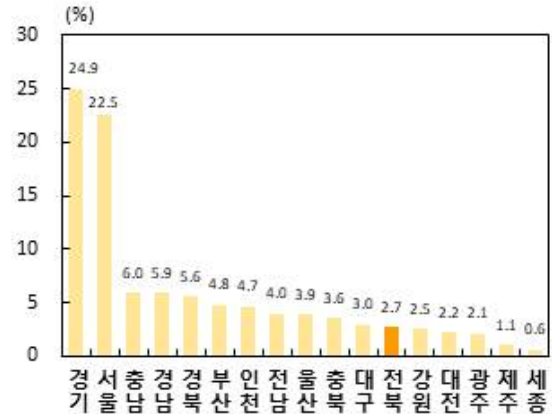
○ GRDP 규모는 증가(1985년의 15.0배)하였으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하락(1985년 3.8% → 2019년 2.7%)

전북의 GRDP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시도별 전국 대비 GRDP 비중(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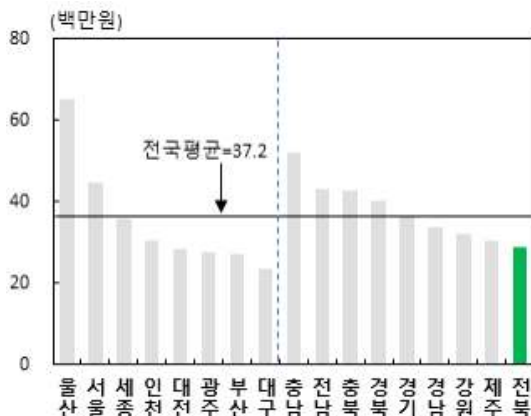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 전북의 1인당 GRDP는 2019년(잠정) 기준 2,874만원으로 전국(3,721만원)의
77% 수준(17개 시도 중 13위)

○ 1인당 지역총소득 및 1인당 가계최종소비지출액은 각각 2,826만원* 및
1,500만원으로 두 지표 모두 17개 시도 중 16위

* 생산 대비 소득이 적은 이유는 기업의 본사 소재지로 영업잉여가 계상되고,
도내 임시 거주 노동자의 보수가 원주소지에서 계상되는데 기인

시도별 1인당 GRDP(2019년)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전국 및 전북의 1인당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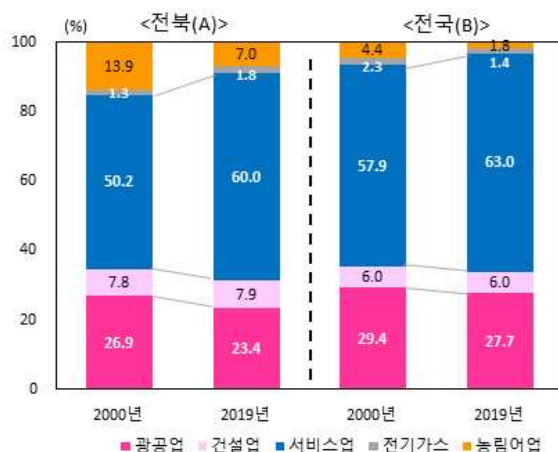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2 산업발전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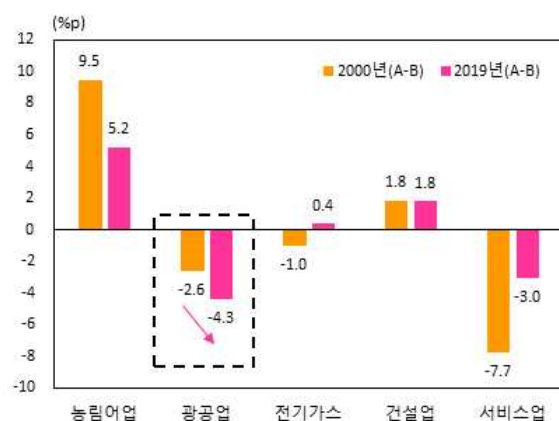
- 2019년 전북의 산업구조(GRDP 명목 총부가가치 비중, 잠정)는 건설업(7.9%), 농림어업(7.0%)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반면, 광공업(23.4%), 서비스업(60.0%) 비중은 전국보다 낮음
 - 9개도와 비교하면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 비중은 9개도(각각 4.9%, 53.2%)보다 높은 반면, 광공업 비중은 9개도(32.5%)보다 낮음
- 2000년과 비교하면 농림어업(13.9%→7.0%) 및 광공업(26.9%→23.4%)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서비스업(50.2%→60.0%) 및 건설업(7.8%→7.9%) 비중은 증가
 - 이러한 변화는 전국 단위의 산업구조 변화흐름과 일치하지만, 광공업의 경우 전국과의 비중 격차가 2.6%p에서 4.3%p로 확대
- 동기간 전북지역 광공업의 성장이 타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음을 의미

전북 및 전국의 산업 비중¹⁾



주: 1) GRDP 명목 총부가가치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전북 및 전국 산업별 비중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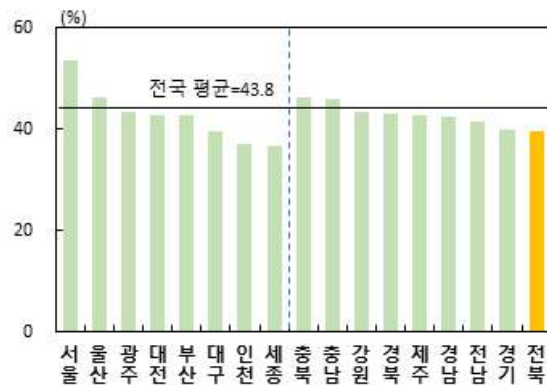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사업체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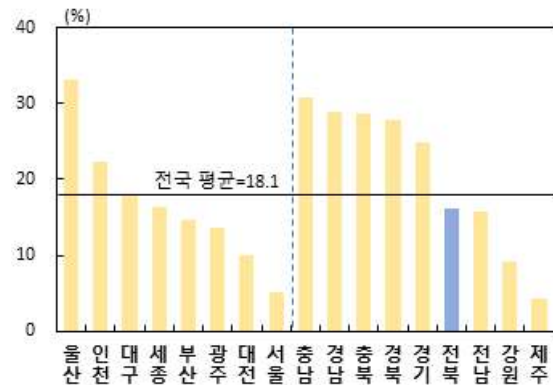
- 2019년 전북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중은 39.6%로 전국(43.8%) 대비 4.2%p 낮음(17개 시도 중 15위)
 - 총사업체 종사자 중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은 16.3%로 역시 전국(18.1%) 대비 낮음(17개 시도 중 10위)

시도별 총사업체 종사자수 비중(2019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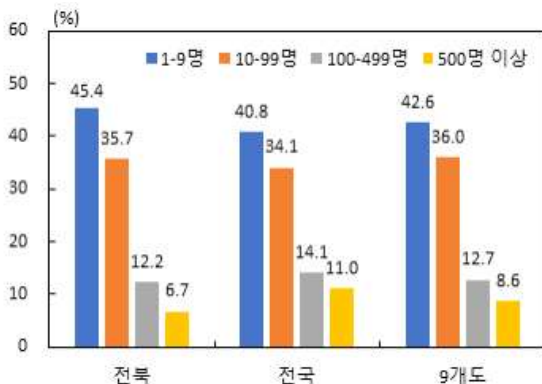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2019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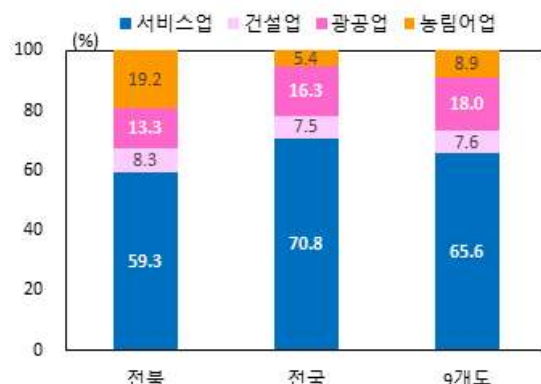
- 전북은 영세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이 높고, 사업체 종사자로 잘 포착되지 않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
 - 사업체 종사자 중에서 9인 이하의 상대적 영세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45.4%)이 전국(40.8%) 및 9개도(42.6%) 대비 높은 편
 - 2020년 농림어업 취업자수 비중은 19.2%로 전국(5.4%) 및 9개도 (8.9%) 대비 높음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2019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2020년)¹⁾



주: 1) 서비스업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식기반산업

- 지식기반산업이란 연구개발(R&D) 활동이 활발하거나, 정보통신기술 관련 제품 및 서비스와 고숙련 인력*의 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정의(OECD(1999) 등)

* 고졸 이상 인력 혹은 이공계 전공자

- 본고에서는 경제력지수 산출 시 김찬준 외(2015)의 지식기반산업 분류*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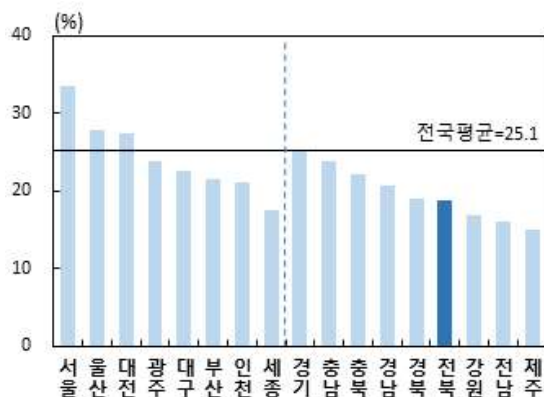
* 세부 분류는 ‘<참고 3> 지식기반산업 분류’ 참조

- 제조업 : 화학, 의약, 플라스틱, 비금속, 금속, 전자, 의료정밀, 전기, 기계, 자동차, 항공산업 내에 속한 일부 업종(87개)
- 서비스업 : 환경, 출판, 정보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교육·의료·문화서비스 내에 속한 일부 업종(199개)

- 총사업체 종사자수 대비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비중은 지역의 인력, 산업 등 경제력 전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경제력지수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86)를 지니는 핵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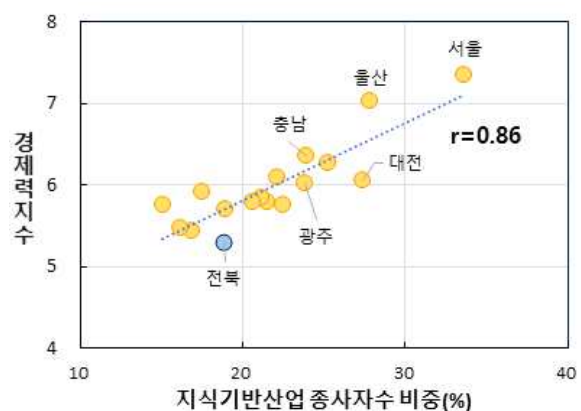
- 고소득지역의 지식역량이 대체로 풍부하며,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추세로 인해 지식역량의 차이는 지역격차를 확대(허문구·안기돈, 2008)
- 전북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비중은 2019년 기준 18.8%로 전국(25.1%) 대비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3위)

시도별 지식기반산업 종사자수 비중(2019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저자시산

지식기반산업종사자 및 경제력지수(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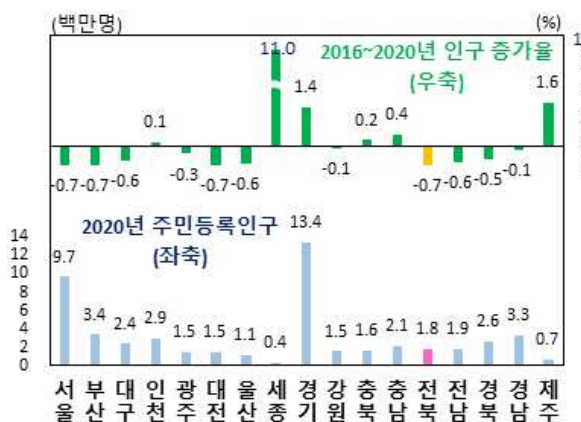
자료: 저자시산

3 인력기반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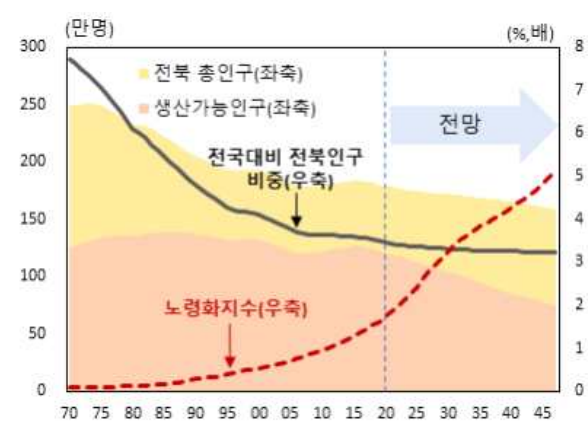
- 전북의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1966년 정점(252만명)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시현하며 2020년 180만명으로 감소
 - 2019년 인구증가율은 -1.0%로 전국(0.0%) 대비 낮음(17개 시도 중 16위)
 -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도 68.2%로 전국(72.7%) 대비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6위)
 - 반면 노령화지수*는 1.63으로 전국(1.19)에 비해 높았음(17개 시도 중 14위)
-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 인구추계에 따르면 전북은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
 - 전북의 생산가능인구는 1986년 정점(139만명)을 찍은 뒤 2020년 121만명으로 하락하였고, 2040년에는 8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 노령화지수는 2020년 1.7에서 2040년 4.3으로 크게 상승할 전망

시도별 인구 및 증가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생산가능인구 및 노령화지수¹⁾



주: 1) 전망은 중위 추계 기준

자료: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2019.6월)

□ 전북의 인구감소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초과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전인

○ 인구이동에는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전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배경으로 타 지역과의 경제력 차이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꼽힘

— 시도간 전출사유는 직업(43.9%)이 가장 많으며 가족(25.0%), 주택(12.7%), 교육 및 기타(18.4%) 순(통계청, 2020년)

— 전북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비중은 19.5%(2018년)로 전국평균(26.5%)을 크게 하회(양준빈, 2019)

* ①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주당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상용직, ②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관리직·전문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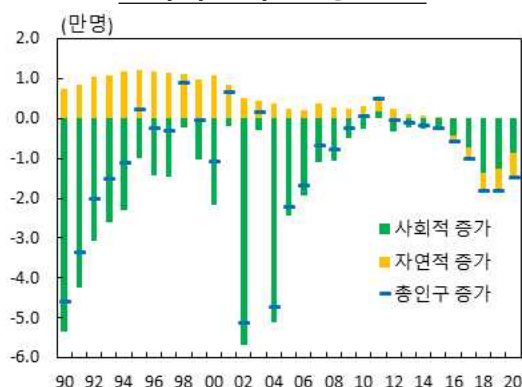
— 전국과 전북의 GRDP 성장률 격차와 순전출자수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어 성장격차가 인구유출 압력으로 작용하였음을 암시(1990~2020년 중 상관계수는 0.31)

○ 더욱이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전국(2020년)보다 빠른 편임

— 인구의 고령화 추이와 낮은 조출생률*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전북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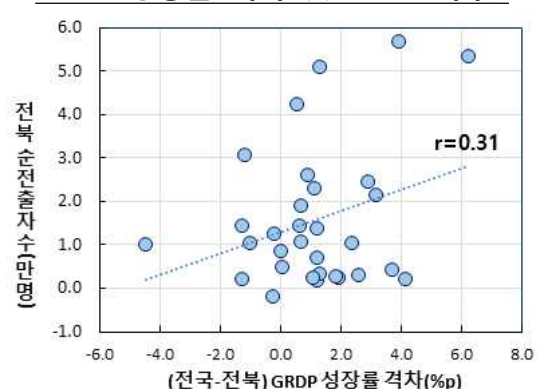
* 인구 천 명당 출생아수, 2020년 전북의 조출생률은 4.5명으로 전국(5.3명) 대비 낮으며 부산(4.5명)과 함께 17개 시도 중 최하위

전북의 인구 변동 요인



자료: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인구동향조사

GRDP 성장률 격차 및 순전출자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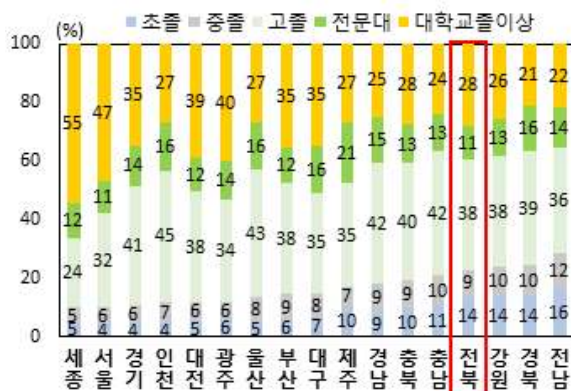


주: 1) 1990~2020년 대상

교육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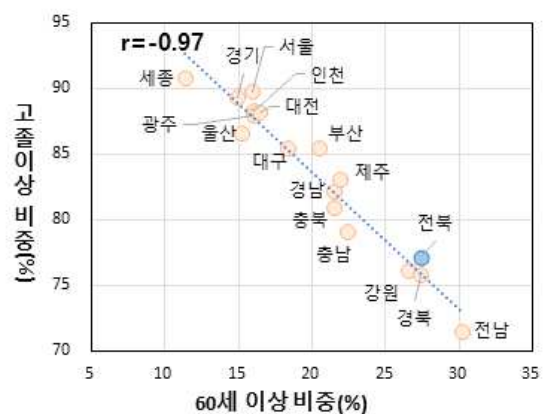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이상 인력 비중은 2019년 기준 77.0%로 전국(85.4%)보다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4위)
 - 한편 대졸이상(전문대졸 및 대학교졸 이상) 비중도 39.6%로 전국(47.3%) 대비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3위)
 - 전북의 고졸이상 인력 비중이 낮은 것은 교육기회 부족보다는 전북의 경제활동인구가 고령화되어 있는 데 주로 기인
 -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 비중 및 고졸이상 비중 사이에는 높은 음(-)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97)가 존재하는데, 전북의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 비중은 27.4%로 전국(18.8%) 대비 크게 높음
 - 고졸이상 인력 비중 외 대학진학률 등 교육여건 관련 여타 지표*는 양호한 수준
- *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한국교육개발원, 2020) : 전북 68.5%, 전국 64.9%
 학령인구 천명당 초·중·고 학교수(균형발전위, 2018) : 전북 3.6개, 전국 2.0개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비중(2019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0세 이상 및 고졸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중(2020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 취업여건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

□ 2019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대비 낮은 편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며 2019년 61.0%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전국(63.3%) 대비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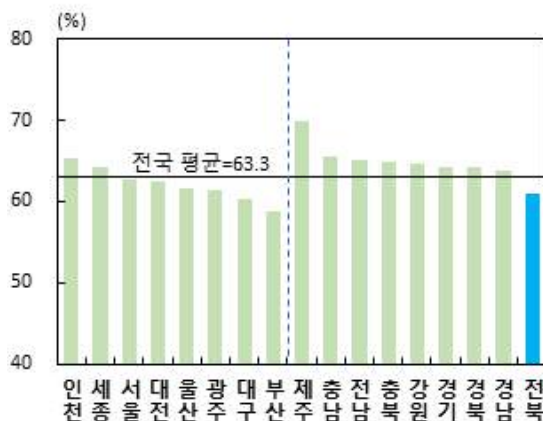
□ 2019년 실업률은 2.7%로 전국(3.8%) 대비 양호한 수준(17개 시도 중 3위)

- 다만, 전북의 낮은 실업률 지표에는 농업 및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특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

— 전체 취업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는 전북이 7.5%로 전국(4.0%) 대비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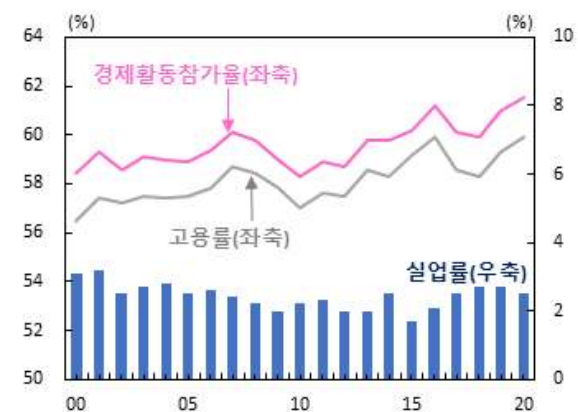
— 주당 근로시간 17시간 이하의 단시간 취업자를 실업자에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0.8%로 전국(10.2%) 및 9개도(10.4%) 대비 높음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2019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북 주요 고용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편 2019년중 연령별 고용상황을 보면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청년층 취업여건이 열악

-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전국(8.9%) 및 9개도(8.7%) 평균을 상회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도 36.0%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

연령계층별 고용지표

(2019년중)

(%)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비중		
	전북	9개도	전국	전북	9개도	전국	전북	9개도	전국
청년층(15~29세)	9.3	8.7	8.9	36.0	44.8	47.8	10.9	12.6	14.5
중장년층(30~59세)	2.1	2.2	2.7	78.9	80.5	78.7	63.7	65.3	68.1
고령층(60세 이상)	1.0	2.6	3.4	48.8	49.4	43.0	25.4	22.1	17.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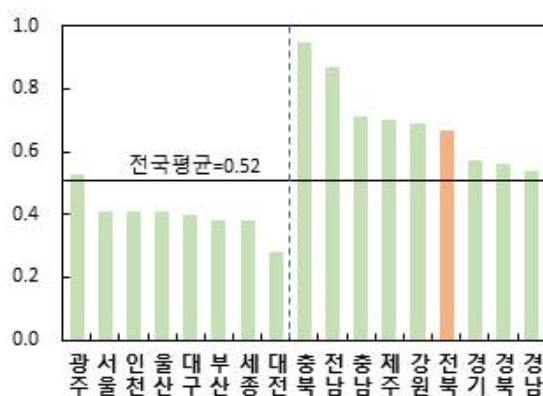
구인배수

- 2019년 전북의 구인배수*는 0.67로 전국(0.52) 대비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9개도(0.70) 대비로는 낮음(17개 시도 중 6위)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에 구인 및 구직을 신청한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로서 구인배수가 높다는 것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

- 전북의 구인배수는 2017년부터 전국평균을 상회
- 다만 구인배수는 노동시장 전체의 구인구직이 아닌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 활동만을 포착하는 지표이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

시도별 구인배수(2019년)



자료: 워크넷

구인배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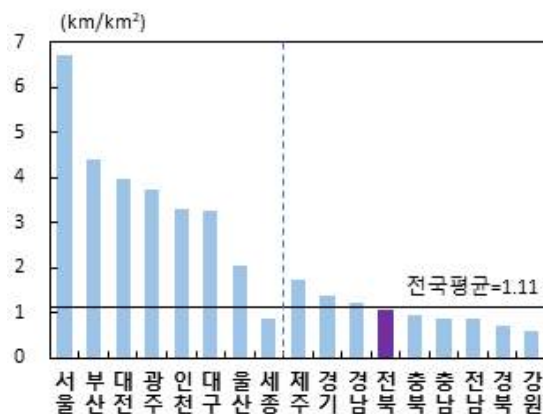


자료: 워크넷

5 SOC 및 재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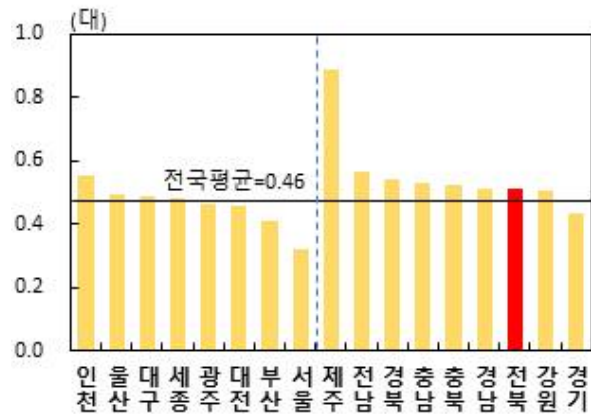
- 사회간접자본(SOC)은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생산 원가를 감소시켜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기능
 - 또한 고속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자동차 산업 등 연관산업이 육성되고,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타 지역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2019년 도로율과 자동차등록대수 측면에서 평가한 전북의 SOC 지표는 전국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다른 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 전북의 도로연장은 8,531km이며 도로율(도로연장/지역면적)은 1.06으로 전국(1.11) 대비 다소 낮음(17개 시도 중 11위)
 - 주민등록인구 대비 자동차등록대수는 0.51대로 전국(0.46) 대비 높은 편(17개 시도 중 8위)

시도별 도로율(2019년)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현황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자동차등록대수(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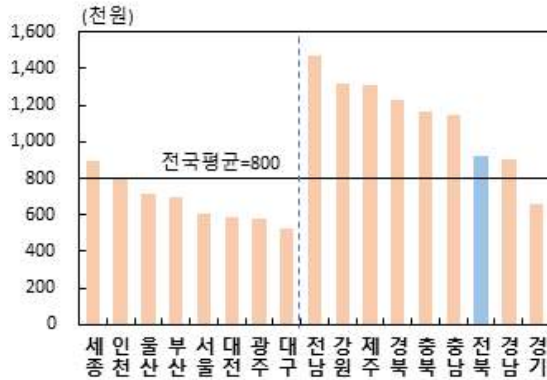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현황

- 주민 1인당 사회간접자본 지방재정 예산은 92.6만원으로 전국(80.0만원) 대비 높음(17개 시도 중 7위)
 - 김재구·최성환(2018)의 추계에 따른 전북의 사회간접자본 스톡*은 2016년 기준 46.2조원으로 전국(746.4조원)의 6.2%를 차지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리치수, 상·하수도, 전기·가스 건물 및 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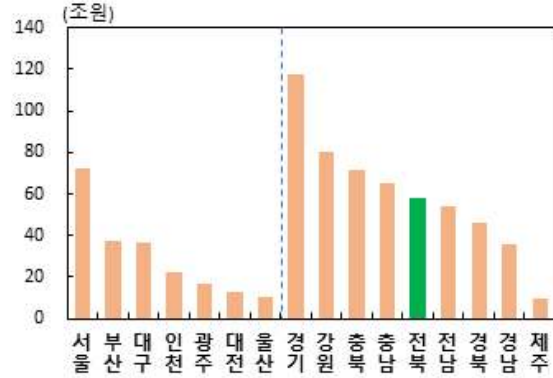
— 연평균 사회간접자본 스톡 증가율(1997~2016년)은 3.4%로 전국(3.5%)과 유사

시도별 1인당 SOC 예산(2019년)¹⁾



주: 1) 지방재정연감 최종예산 결산(순계) 기준
자료: 지방재정 365

사회간접자본 스톡(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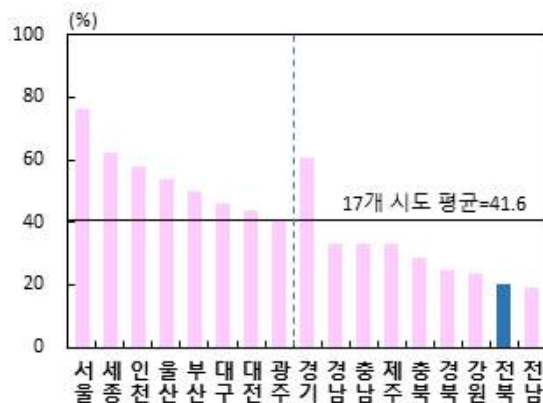


자료: 김재구·최성환(2018) 추계

□ 2019년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는 20.4%로 17개 시도 평균(41.6%) 대비 절반 수준이며, 전국(44.9%) 및 9개도 평균(30.7%) 대비로도 낮은 수준(17개 시도 중 1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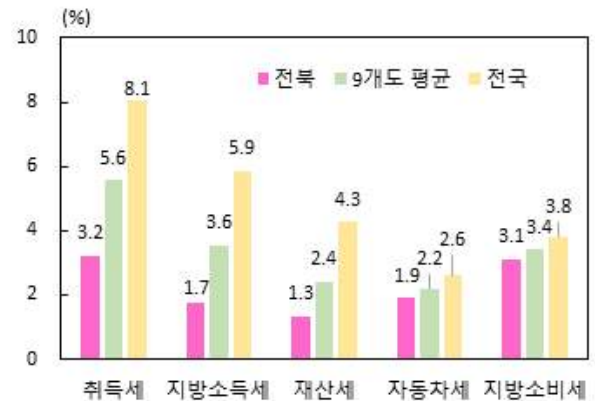
- 대기업 수가 적고, 농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업 납부분이 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수기반이 취약
- 또한 1인당 지역총소득이 낮고(17개 시도 중 16위), 인구감소세 지속으로 가계의 세수기반도 취약하여 재산세 세수도 전국 대비 작은 수준

시도별 재정자립도(2019년)



자료: 통계청

지방세 주요 세입목의 세입 비중¹⁾



주: 1) 2019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세출 대비 세입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IV

요약 및 시사점

- 5개 부문 15개 지표로 구성된 경제력지수 산출결과 전북은 장기간 최하위를 기록하여 타 시도 대비 경제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
 - 다만, 동 지수는 시도간 상대순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제력 수준, 주관적 행복감 및 삶의 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불균형 누증에 따른 지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가 성장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구조전환 및 역량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

(산업구조 전환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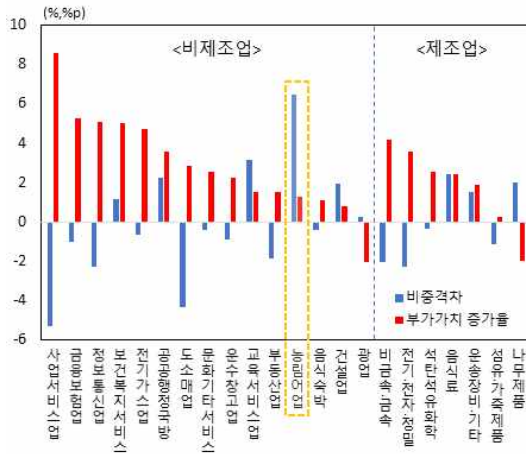
- 과거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결정된 산업입지는 현재의 산업집적의 공간적 배치에도 지속적으로 영향*

* '<참고 4> 지역의 경로의존성 관련 논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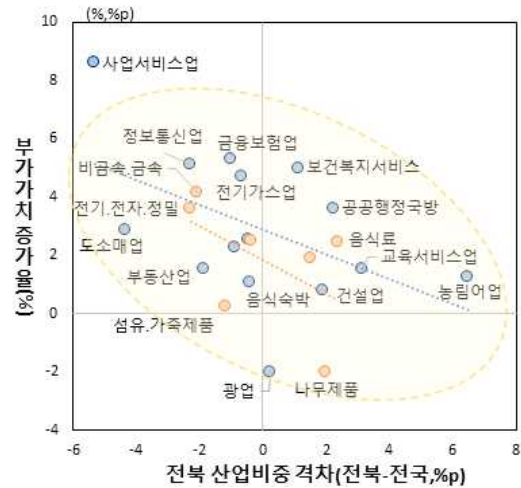
-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발전이 미진하였고 농업 등 1차 산업 의존도가 높았음
 - 이에 따라 제조업의 발달과정에서 축적되었어야 할 숙련된 인적 자원, 기술 및 자본이 부족
- 지역간 경제력 격차에 관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제력 격차는 지역의 총체적인 생산성의 차이보다는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에 주로 기인(김종일, 2010)
 -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당시 산업구조를 보면 전북은 농림어업, 교육서비스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사업서비스,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등은 낮은 비중
 - 그러나 2000~2018년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전북이 전국대비 낮은 비중을 보유한 산업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면서* 소득격차를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
 - * 산업비중격차(전북-전국)와 부가가치 증가율간 상관계수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관찰(상관계수 : 제조업 - 0.54, 비제조업 - 0.49)

2000년 산업비중 격차¹⁾ 및 이후 부가가치 증가율²⁾

(부가가치 증가율 순)



(상관관계)



주: 1) 2000년 경제활동별 GRDP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격차(전북-전국)

2) 2000~2018년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전북)

자료: 통계청, 저자시산

□ 한편 외환위기 전후 형성된 경제환경 변화에 맞춘 구조전환 노력을 통해 경제적 불균형을 극복한 사례로 충남 및 충북을 들 수 있음

○ 수도권 규제에 따른 반사효과로 수도권 제조업 공장이 충남·북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발맞춘 산업육성 정책*도 유효(김원배·신혜원, 2013)

* 충남은 LCD, IT, 충북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IT관련 산업의 성장흐름과 부합하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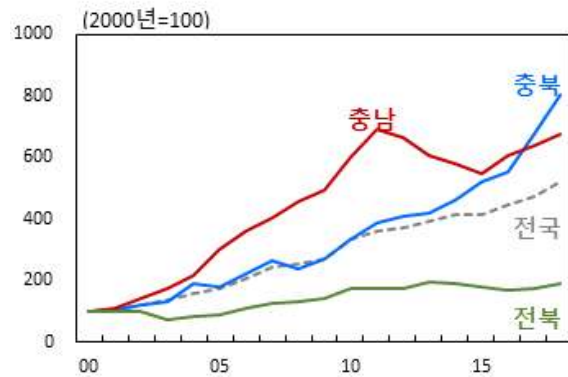
○ 전북은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산업구조가 경직되고 외부충격에 낮은 탄력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김원배·신혜원, 2013), 기존의 발전 경로를 뛰어넘기 위해서 과감한 구조전환 노력이 필요

지역별 1인당 GRDP의 전국 대비 비율¹⁾



주: 1) 전국 1인당 GRDP(당해년가격) 대비 비율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2000년 이후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 성장 추이¹⁾



주: 1) 2000년=100, 지역내 총부가가치(실질)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성장잠재력 보유 산업의 발굴)

- 산업육성 정책 측면에서 잠재적 성장성을 갖춘 산업을 사전에 발굴하여 선점할 필요
 -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의 성과나 우위가 지속되어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하고 기술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는 주요 산업을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
 - 전북의 강점 및 경쟁력, 특화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및 자립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장잠재력을 가진 산업에 투자와 지원을 감행
 - 이러한 측면에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전주, 2021.3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완주, 2021.3월)와 같은 성과는 큰 의미를 지님
- 다만, 산업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불명확한 다양한 목표나 사업을 제시하는 백화점식 육성정책은 지양해야 함
 - 예컨대 전북의 4대 주력산업의 경우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논의 과정에서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대상 기업수도 증가하는 경향
 - 한정된 자원이 여러 부문에 배분되면 본래의 목적 달성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자생력 확보에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

2021년 전북지역 주력산업 개편 방안

개편 전		개편 후		
기존 산업명	업종 수 사업체수 ¹⁾	변경 산업명	업종 수 사업체수 ¹⁾	신규 추가 업종
■ 농생명소재·식품	5개 190개	■ 스마트농생명·식품	10개 276개	바이오기술, 건강증진, 기능성소재, 뷰티 등
■ 지능형기계부품	5개 205개	■ 미래지능형기계	10개 345개	ICT융·복합, AR/VR, 의료기기 등
■ 탄소·복합소재	5개 164개	■ 탄소·복합소재	10개 193개	화학소재, 전자소재, 친환경 가공기술 이용 고부가 섬유 등
■ 해양설비기자재	5개 69개	■ 조선해양·에너지	10개 170개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유망품목 등

주: 1) 10인 이상 사업체수 기준
 자료: 전라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2021)

(내부 역량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

□ 그동안 전북을 비롯한 낙후 지역은 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및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외부 의존적 성장전략을 실시

○ 전북은 2010년대 초까지 주력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에 힘입어 성장세를 누리기도 하였으나 이후 화학,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이 대외여건 변화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며 성장동력도 저하

○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유효수요 확보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양적 기반을 확충하여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할 필요

— 지역 내 산재한 여러 소경제권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행정·제도 면에서 통합성을 제고

□ ICT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언택트기술이 일상에서 보편화됨에 따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빨라지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산업은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이 이미 입지해 있고 혁신역량이 큰 고소득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로의존적 경향(김희철·홍성조, 2015; 허문구·안기돈, 2008)

○ 지식기반 기업의 입지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유인제공과 우수인력을 육성하는 등 경제기반을 전반적으로 성숙시켜 대응할 필요

□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방조제 착공(1991년) 이후 30년간 진행되고 있으나 개발의 장기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지역경제 전반에 미쳐야 할 긍정적 파급효과가 미진

* 사업비 22.19조원(국비 10.91조원, 지방비 0.95조원, 민자 10.33조원)을 들여 총 면적 409km²(매립291km², 담수호 118km²)를 산업연구용지, 농생명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

○ 향후 민간자본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고, 추진중인 SOC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필요

* 국제공항('28년 완공예정), 신항('30년 1단계 완공예정), 대야~새만금항 철도('28년 완공예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24년 준공예정) 등이 진행

< 참고문헌 >

- 김광민(2019), “충북경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충북본부
- 김원배·신혜원(2013), “한국의 경제위기와 지역 탄력성”, 국토연구 제79권, pp.3-21
- 김재구·장성화·김상엽·이지훈·김귀진·이대성(2020), “2단계 새만금사업 추진 과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연구원 기획연구 2020-02
- 김재구·최성환(2018),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전북연구원 기획연구 2018-02
- 김종일(2010), “한국의 지역간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 응용경제, 12(1), pp.181-203
- 김찬준·송하율·김홍석·변창욱·김민수(2015),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제주 인적자본 제고 방안”, 한국은행 제주본부
- 김희철·홍성조(2015), “신성장동력산업의 입지현황 및 집적특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4), 65-87.
- 박종화(2009), “지역산업정책 형성과정에서의 경로의존성”, 국토연구, pp.235-254
- _____(2012), “지역적 경로의존성의 메커니즘”, 사회과학연구, 28(3), pp.349-374
- 산업연구원(2006),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간 발전격차 분석”
- 양준빈(2019), 전북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전북본부
- 유재현(2009), “전북지역 경제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전북본부
- 이상빈·박은병(2010), “지역개발정책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57), pp.345-370

이원섭·박양호(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이종연(2013), “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3-10

이희연(2010), “지식창출활동의 공간적 집적과 지역간 격차요인 분석”, 지식
재산연구 5(1), pp.113-149

전라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2021)

정희준(2011),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현황 인식과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한국은행 전북본부 연구용역 보고서

최두열·안시온(2014), “한국의 지역별 소득 수렴에 대한 연구”, 한국은행 대
전충남본부 외부공동연구

최정은·김수진(2018), “전북지역 불균형 현황과 균형발전 전략”, 한국은행
전북본부 외부공동연구

KDI(2013), “지역낙후도지수 개선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13-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2020 지역발전지수”

허문구·안기돈(2008), “한국의 경제성장과 지역소득격차 간 인과관계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2), pp.233-256

홍준현(2001), “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pp.161-178

OECD(1999),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STI Scoreboard)

Scott, A. J(2006), *Geography and Economy*, Oxford : Oxford Univ. Press

Martin, R. and P. Sunley(2006), “Path Dependence and Regional
Economic 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6, Oxford :
Oxford Univ. Press, pp.395-437

<참고 1>

지역발전정도 측정 선행연구

구분	출처	구성	분야	지표
지역낙후도 지수	KDI (이종연, 2013)	6분야 8지표	인구, 산업, 지역기반시설, 교통, 보건·사회보장, 행·재정, 기타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 도로율, 승용차등록대수, 인구당의사수,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지역발전지수	산업연구원 (김영수외, 2006)	2분야 9부문 29지표	지역경제력지수 주민활력지수	1인당GRDP, 1인당 소비지출액, 인구증가율, 교육여건, 의료/복지, 문화환경, 근로환경, 산업구조, 경제활동참가율, 산업발전정도, 재정력 등
지역발전지수	농촌경제 연구원 (심재현, 2014)	4영역 12영역 20지표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여유공간, 주민활력	노후주택비율, 상하수도보급율, 교육여건, 보건·복지여건, 산업기반, 소득수준, 녹지기반, 문화체육기반, 인구구조, 인구변화, 출생률
지역생활권 삶의 질 측정	지방행정연 구원 (김선기 외, 2014)	6영역 14부문 38지표	생활권기반, 지역경제·고용창출, 교육, 문화·생태, 복지·의료, 기타	도로율, 1인당 주거비율, 1인당 GRDP, 1인당 지방세, 교육여건(사설학원수, 학교수), 문화시설수, 복지시설수, 병상수, 의료인수, 인구증감율, 사업체 수, 화재발생건수, 고용률, 만족도 조사 등
지역격차 산출	홍준현 (2001)	5영역, 10지표	지역경제, 지방재정, SOC, 인적자본, 생활환경	취업률, 1인당 GRDP, 1인당지방세징수액, 도로연장률, 상수도보급율, 취업률, 의사수, 사회복지시설수
차등지원 대상 선정	이원섭, 박양호 (2002)	5분야 15지표	인적자원, 재정기반, 경제기반, 보건복지, 인프라	인구밀도, 연평균증가율, 1인당 징수액,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수, 총사업자수, 자동차등록대수, 의사수, 병상수, 도로율
지역발전 잠재력 지표	김태환 (국토연구 원, 2004)	4영역 16부문 30지표	경제잠재력, 혁신기반, 사회문화, 생활환경	인구증가율, 경제활동인구, 재정자립도, 접근성, 벤처기업수, 도로율, 문화재수, 등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 분석	경기연구원 (2013)	4부문 8지표	인구활력, 경제기반, 도시재정, 도시기반시설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2·3차산업 종사자수, 지방소득세, 재정력지수,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율, 전철역수
강원도 지역발전도	류종현 외 (2015)	4부문 14지표	소득, 생활, 복지, 사회	재정력지수, 총사업체, 제조업 종사자수, 인구변화율, 노령화지수, 인구밀도, 승용차등록대수,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수, 의료/병상수, 문화공간수, 토지이용률, 도로포장률, 금융기관수

자료: 최정은·김수진(2018)에서 수정 재인용

지식기반산업의 분류 문제

- 지식기반산업(지식기반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필요
 - 산업연구원(2006) 지역발전지수의 경우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산업자원부, 2004)상의 지식기반제조업 분류를 차용하였고, 서비스업은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비즈니스서비스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
 - 그러나 현재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2019년 기준)에서 지식기반제조업의 분류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2004년 당시 적용한 지식기반산업 분류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한계
 - 이 경우 2004년 이후 기술혁신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의 구조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산업연구원 및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집필한 김찬준 외(2015)는 비교적 최근에 이뤄진 지식기반산업 분류이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라 세세분류까지 제공하고 있어 활용이 용이
 - 해당 연구에서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 상의 첨단업종의 범위를 지식기반제조업으로 분류(87개 업종)
 - 서비스업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포함하되 금융업을 추가하고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업 등 전통서비스업종은 제외(199개 업종)

*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분류로 산업연구원(2006)이 아닌 김찬준 외(2015)의 지식기반산업 분류를 이용
 - 다만, 해당 연구가 제9차 표준산업분류(2008년 개정)를 사용한 점을 감안하여 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사용하여 분석대상 시점의 KSIC 분류번호(8차, 10차)를 추출하여 활용

<참고 3>

지식기반산업 분류

<지식기반 제조업>

산업구분	세부 업종명 ¹⁾	
화학산업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 합성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의약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 속/금 속 제품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통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전자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저항기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제조업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의료 /정밀기기 /광 학 기기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안경 제조업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전기기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천시 및 광고용 조명 장치 제조업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계산업	내연기관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전자 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항공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주: 1) KSIC 9차 기준

<지식기반 서비스업>

산업구분	세부 업종명 ¹⁾	
환경 서비스업	하수 처리업 폐수 처리업 분뇨 처리업 축산분뇨 처리업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금속원료 재생업 비금속원료 재생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기타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정보통신 서비스산업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유선통신업 무선통신업 위성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시설 관리업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금융산업	중앙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기타 저축기관 자산운용회사 기타 투자기관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기금 운영업 금융지주회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생명 보험업 손해 보험업	보존 보험업 건강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재보험업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업 투자 자문업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 장비 임대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경제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 과학 연구개발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 작성업 그 외 기타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경영컨설팅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주: 1) KSIC 9차 기준

산업구분	세부 업종명 ¹⁾	
사업 서비스업 (계속)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지도제작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비디오 촬영업 상업용 사진 촬영업 사진 처리업 매니저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일반 및 해외 여행사업 국내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문서 작성업 복사업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산업	일반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학원 온라인 교육학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예술 학원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운전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의료서비스 산업	종합 병원 일반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일반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불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 보건업
문화서비스 산업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공연단체 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박물관 운영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주: 1) KSIC 9차 기준

지역의 경로의존성 관련 논의

-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란 과거의 사소한 성과나 우위가 이후의 발전경로에서 지속성과 비가역성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
 - 대표적인 사례인 초기 영문 타자기의 QWERTY 자판은 다른 대안에 비해 비효율적인 체계임에도 사용자들의 잠금현상(lock-in)으로 인해 현재도 표준으로 유지
- 지역의 발전경로에서 경로의존성의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가 경제지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연구자들에 따르면, 한 지역은 물리적 인프라, 제도와 관습 및 기존 산업의 분포형태 등을 토대로 자기강화적 발전경로를 따름
 - 현재의 경제적 상태는 지역적 경로의존성의 결과이면서 향후에도 중요한 결정인자가 됨(박종화, 2009; Martin&Sunley, 2006; Scott, 2006)
- 과거 국토개발정책에 따라 결정된 지역별 산업입지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효과를 창출하여 현재의 산업집적의 공간적 배치에도 지속적으로 영향
 - 성장성 높은 산업을 보유한 지역은 인적자본과 기술의 축적을 통해 혁신역량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 높아져 향후에도 우위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음
 - 정책수립에서도 기존 지역경제의 특성을 유지하고 답습하려는 경향(박종화, 2012)이 나타나는데, 이 역시 지역의 경로의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음

<참고 5>

지표별 경제력지수 산출결과

(2019년)

부문	소득수준		산업발전			인력기반				취업여건			SOC-재정력			경제력 지수	순위	비교 지수	순위
지표	1인당 GRDP	1인당 소비	사업체 종사자	제조업 종사자	지식 산업	인구 성장률	15~64세 인구	노령화 지수	고졸 이상	경찰 참가	실업률	구인 배수	도로율	자동차 등록	재정 자립				
서울	6.79	8.94	8.82	4.44	8.51	5.72	7.29	5.59	7.15	5.66	4.66	5.19	9.65	4.29	8.16	7.35	1	6.92	1
부산	5.10	6.45	6.03	5.53	5.90	5.52	5.99	4.98	6.37	4.09	5.70	5.02	6.58	5.08	6.52	5.80	10	5.70	13
대구	4.74	6.40	5.20	5.91	6.12	5.45	6.41	5.96	6.37	4.65	5.70	5.14	6.21	5.80	6.27	5.76	13	5.74	12
인천	5.39	5.55	4.48	6.40	5.83	5.94	7.18	6.66	6.87	6.75	4.66	5.19	6.22	6.39	7.00	5.85	9	5.97	9
광주	5.11	6.93	6.15	5.41	6.40	5.81	6.72	6.75	6.82	5.18	5.70	5.85	6.36	5.58	5.95	6.03	7	6.02	8
대전	5.19	6.81	6.03	5.00	7.17	5.42	7.03	6.63	6.85	5.54	4.96	4.47	6.44	5.52	6.14	6.05	6	5.95	10
울산	8.78	6.98	6.94	7.64	7.27	5.59	7.29	7.18	6.58	5.26	4.96	5.19	5.81	5.84	6.75	7.03	2	6.61	2
세종	5.92	5.56	4.45	5.72	5.05	9.85	5.76	8.12	7.32	6.30	7.19	5.02	5.42	5.72	7.27	5.92	8	6.29	4
경기	5.95	6.23	5.29	6.69	6.71	6.48	7.03	6.96	7.07	6.30	5.55	6.07	5.59	5.32	7.17	6.27	4	6.31	3
강원	5.55	5.51	6.17	4.91	4.90	5.85	5.27	4.82	4.73	6.42	5.85	6.74	5.33	5.98	4.88	5.43	16	5.51	16
충북	6.58	5.22	6.91	7.11	6.04	5.92	5.92	5.80	5.55	6.54	6.60	8.17	5.44	6.12	5.20	6.10	5	6.16	6
충남	7.53	5.52	6.79	7.36	6.42	5.84	5.38	5.80	5.23	6.83	6.90	6.85	5.42	6.15	5.47	6.36	3	6.26	5
전북	5.23	4.98	5.17	5.71	5.32	5.44	4.69	4.93	4.87	4.97	7.19	6.63	5.48	6.00	4.69	5.30	17	5.40	17
전남	6.65	4.64	5.64	5.65	4.75	5.54	3.70	4.31	3.88	6.63	7.34	7.73	5.42	6.50	4.61	5.48	15	5.57	15
경북	6.35	5.24	6.08	7.02	5.35	5.71	4.85	4.71	4.64	6.26	5.40	6.02	5.37	6.29	4.97	5.70	14	5.62	14
경남	5.71	5.44	5.91	7.15	5.72	5.74	5.80	6.15	5.78	6.06	5.55	5.91	5.54	6.01	5.49	5.79	11	5.80	11
제주	5.42	5.59	5.96	4.35	4.52	6.17	5.69	6.65	5.91	8.56	8.09	6.79	5.71	9.42	5.47	5.77	12	6.15	7

지표별 경제력지수 산출결과

(2010년)

부문	소득수준		산업발전			인력기반				취업여건			SOC·재정력			경제력 지수	순위	비교 지수	순위
지표	1인당 GRDP	1인당 소비	사업체 중사자	제조업 중사자	지식 산업	인구 성장률	15~64세 인구	노령화 지수	고졸 이상	경활 참가	실업률	구인 배수	도로율	자동차 등록	재정 자립				
서울	6.40	8.77	8.86	4.49	8.19	5.60	7.56	6.30	7.17	6.45	4.37	5.37	9.64	3.63	7.98	7.20	1	6.86	1
부산	5.20	6.25	5.97	5.59	5.78	5.05	7.03	5.63	6.46	4.18	5.58	4.73	6.47	4.51	6.54	5.73	12	5.66	13
대구	4.91	6.09	5.24	5.94	6.32	5.35	6.70	6.46	6.50	5.39	5.14	5.53	6.09	6.03	6.47	5.82	11	5.84	11
인천	5.60	5.89	4.85	6.62	5.87	6.88	7.00	6.93	6.91	6.72	4.04	6.40	5.94	4.89	7.19	5.97	8	6.10	6
광주	5.14	6.66	6.13	5.43	6.70	6.37	6.37	7.08	7.04	5.24	5.69	5.10	6.24	5.45	6.02	6.03	7	6.03	9
대전	5.27	6.69	5.67	4.96	6.80	6.11	6.79	7.02	6.92	5.08	5.47	5.32	6.34	6.11	6.47	6.07	6	6.06	7
울산	8.88	6.91	7.39	7.50	5.61	5.61	7.09	7.51	6.99	6.10	5.69	6.13	5.71	6.40	7.03	6.96	2	6.71	2
세종	-	-	-	-	-	-	-	-	-	-	-	-	-	-	-	-	-	-	-
경기	5.68	6.79	5.39	6.75	7.16	8.77	6.58	7.08	7.10	6.29	5.14	7.10	5.61	5.43	7.32	6.50	3	6.60	3
강원	5.41	5.28	5.46	4.83	4.55	5.77	5.33	5.10	4.89	4.65	6.68	4.94	5.36	6.54	4.97	5.23	16	5.27	15
충북	5.93	5.33	6.17	6.71	6.14	6.33	5.57	5.66	5.54	5.94	7.12	7.10	5.47	6.59	5.31	5.94	9	6.03	8
충남	7.40	5.70	5.99	7.12	7.07	7.06	5.18	5.23	5.40	6.45	6.24	8.50	5.49	6.69	5.46	6.46	4	6.42	4
전북	5.38	4.71	4.93	5.71	5.31	5.18	4.85	5.02	5.02	4.96	7.12	4.94	5.50	6.11	4.84	5.23	15	5.28	14
전남	6.77	4.50	4.77	5.64	4.37	4.32	3.84	3.92	3.90	7.04	7.23	5.75	5.45	5.87	4.63	5.25	14	5.26	16
경북	6.63	5.24	6.18	6.99	5.80	5.13	5.21	4.55	4.61	7.23	6.46	5.91	5.39	6.94	5.08	5.91	10	5.83	12
경남	6.09	5.63	6.53	7.36	5.71	5.98	5.81	6.13	5.79	6.18	6.46	7.15	5.57	7.13	5.78	6.10	5	6.15	5
제주	5.31	5.56	6.48	4.35	4.62	6.48	5.09	6.36	5.76	8.09	7.56	6.02	5.75	7.69	4.92	5.60	13	5.90	10

지표별 경제력지수 산출결과

(2000년)

부문	소득수준		산업발전			인력기반				취업여건			SOC·재정력			경제력 지수	순위	비교 지수	순위
지표	1인당 GRDP	1인당 소비	사업체 중사자	제조업 중사자	지식 산업	인구 성장률	15~64세 인구	노령화 지수	고졸 이상	경활 참가	실업률	구인 배수	도로율	자동차 등록	재정 자립				
서울	6.52	8.06	8.67	5.25	6.76	5.90	8.20	6.61	7.22	6.12	5.30	6.50	9.66	5.01	7.66	7.05	2	6.89	2
부산	5.14	6.55	6.12	5.79	5.25	4.93	7.80	6.38	6.61	5.49	3.77	6.82	6.36	3.89	7.09	5.81	10	5.82	11
대구	5.01	7.49	5.55	6.12	5.57	6.17	7.07	6.67	6.56	5.24	5.45	6.11	5.98	6.77	6.95	6.14	5	6.15	5
인천	5.58	5.80	5.50	7.17	6.83	6.87	6.22	6.98	6.98	6.16	5.07	7.70	5.94	5.90	6.88	6.24	4	6.36	4
광주	5.15	6.79	6.08	5.22	5.65	6.54	6.34	6.94	7.00	4.60	4.23	6.13	6.44	5.54	6.40	5.90	9	5.91	9
대전	5.39	6.57	5.56	5.05	5.91	7.02	6.66	6.92	6.83	4.78	5.53	5.37	6.12	6.81	6.88	6.02	7	6.07	6
울산	9.28	6.66	7.73	7.80	8.07	6.95	6.10	7.47	7.04	5.66	5.91	6.49	5.92	7.03	6.94	7.45	1	7.11	1
세종	-	-	-	-	-	-	-	-	-	-	-	-	-	-	-	-	-	-	-
경기	5.89	6.71	5.50	7.12	7.58	8.54	5.81	6.95	6.94	6.41	6.22	8.04	5.60	6.61	6.90	6.67	3	6.78	3
강원	5.55	5.40	5.46	4.73	4.78	5.31	5.81	5.30	5.37	5.20	7.22	5.09	5.39	6.61	4.99	5.35	14	5.43	14
충북	5.98	5.29	6.11	6.39	6.21	5.81	5.53	5.50	5.41	5.66	6.45	5.21	5.51	6.15	5.18	5.79	11	5.74	12
충남	6.73	4.99	5.37	6.45	6.14	5.57	4.92	4.61	4.37	6.62	7.06	5.28	5.47	5.89	4.98	5.76	12	5.69	13
전북	5.35	4.38	4.51	5.48	5.04	4.96	5.17	4.93	5.02	5.06	6.83	6.41	5.49	5.17	4.94	5.08	16	5.23	15
전남	6.33	4.84	4.82	5.32	4.62	4.36	4.36	4.09	4.16	7.08	6.68	3.94	5.46	4.24	4.61	5.11	15	5.06	16
경북	6.55	6.18	6.00	6.90	6.48	5.06	5.29	4.68	4.81	7.47	6.60	5.09	5.40	6.52	5.05	6.10	6	5.93	8
경남	6.16	5.08	6.70	7.04	6.60	5.90	5.45	5.83	5.74	5.98	6.53	5.71	5.57	6.06	5.41	5.99	8	5.96	7
제주	5.39	5.24	6.32	4.16	4.53	6.11	5.29	6.13	5.95	8.46	7.14	6.09	5.70	7.80	5.15	5.54	13	5.86	10